

광주시 한달간 170명 감염...방역단계 조정 '고심'

방문판매업체로부터 잇단 소규모 집단감염 확산
한편 '병상 위기'까지... '조용한 전파' 가늠 어려워
전국 유일 '2단계 거리두기' 29일 종료...조정검토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유행'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지역사회 내 감염이 급속 확산하면서 한 달만에 확진자가 폭증했고, 전파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도 잇따라 발생해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다.
방역당국은 전국 유일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마감을 앞두고 조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26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지역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월3일 이후 이날 오전까지 누적 환자는 203명이다. 이 중 170명은 대전 방문판매업체발 집단 전파가 시작된 지난달 27일 이후 발생한 환자다.

첫 확진 이후 지난달 20일까지 이어졌던 '1차 유행' 기간 중에는 해외입국자·신천지교회 관련 감염 사례가 대다수였다.

같은 기간 지역 확진자 37명 중 22명이 해외체류 이력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다. 신천지교회 내 집단 전파와 관련이 깊은 환자는 9명이었다. 나머지 2명은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별다른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았다.

1차 유행과 달리 2차 유행은 지역사회 내 감염자가 대다수다.

지난달 27일 34명 환자 확진을 기점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역사회 곳곳으로 빠르게 퍼졌다. 누가 어디서 감염되고 어떻게 전파됐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

도로 빠른 확산세였다.
2차 유행은 밀접접촉 가능성이 높은 대전~광주 지역간 방문판매업체 교류에서 촉발돼 활동 범위가 넓은 방문판매 영업 행위를 매개로 널리 퍼졌다.

특히 감염에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를 타고 들었다. 고령층 거주·요양 시설, 밀집 행사가 잦은 종교시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 등지로 확산됐다.

다수의 방문판매업체가 활동한 금양오피스텔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광주사랑교회·아가페실버요양센터·한울요양원·일곡중앙교회·SM사우나·광주고시학원 등지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타 지역 거주 가족, 직장 동료, 지인 간 접촉으로까지 확산 폭이 커지며 'n차 감염'이 현실화됐다.

이달 18일부터는 송파 60번 확진자가 역학조사 당시 숨졌던 지역 내 일가족 식사 모임(7월15일)이 새로운 감염원으로 떠올라 관련 감염자 10명이 잇따랐다.

그 사이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자가격리 대상자 중에도 추가 확진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전파 경로를 알 수 없는 192번 환자의 가족·지인 간 소규모 모임에서 확진자 9명이 나왔다.

2차 유행 이후 170명의 감염 경로는 방문판매업체 관련 금양오피스텔이 32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일곡중앙교회 30명 ▲광주사랑교회 16명 ▲광주고시학원 14명 ▲베드민턴 생활체육 동호회 14명 ▲한울요양원 12명 ▲송파 60번 환자 접촉 12명 ▲가족·지인 소규모 식사모임 9명 ▲광복사 8명 ▲해외 유입 8명 ▲아가페실버센터 7명 ▲SM사우나 6명 ▲감염원 미확인 2명 등이다.

확진자가 한 달만에 폭증하면서 격리 병상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중증환자 집중 치료 인프라 부족까지 우려됐다.

이에 시 방역당국은 광주·전남·전북 권역별 병상 공유를 통해 중증도가 낮은 확진자들을 타 지역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옮겨 치료했다. 일부 경증 환자는 천안 생

활치료센터에 격리되기도 했다.

타 지역 병상을 확보하고 감염력이 낮은 경증 환자를 조기 퇴원시키는 등 발빠른 대처 덕에 병상은 여유를 되찾았다. 현재 가용 병상은 88개까지 확보된 상태다.

다만, 확진자 중 161·168·192번 환자는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이른바 '깜깜이 환자'여서, 방역당국이 추후 집단 연쇄감염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192번 환자와 식사를 함께 한 가족·지인 9명이 확진된 것처럼, 지역사회 내 예상치 못한 무차별 감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조용한 전파' 때문에 추가 확진자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61·168번 환자는 보름 넘게 정밀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감염 경위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다행히 이들의 접촉자 중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광주는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다. 인접한 전남도는 이날부터 방역단계를 1단계로 하향했다.

한 차례 연장한 '2단계 거리두기' 마감이 오는 29일로 다가오면서 시 방역당국은 정확한 감염 추이를 분석하고, 추후 확산 위험 정도를 추산하고 있다.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방역단계 유지 또는 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조인호 기자



화사한 흥련잔치

장맛비가 주춤했던 지난 26일 전남 강진군 강진읍 보은산 V-랜드 연꽃단지 흥련 밭이 화사한 분홍빛으로 물든 가운데 모처럼 맑은 하늘을 반기며 여름을 즐기려는 이들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 코로나19 지속' KIA 홈경기 무관중 유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6일부터 프로야구 관중 입장을 허용했지만 KIA타이거즈는 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폭증으로 인해 무관중을 유지한다.

KIA는 타구단이 관중을 입장 시키더라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는 당분간 무관중 경기가 유지된다고 24일 밝혔다.

26일 오전까지 광주지역 누적 환자는 203명이다. 지난달 27일 이후 한달만에 170명이 발생했다.

KIA는 지역의 상황을 우선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가 유지되면 무관중 경기를 지속할 방침이다.

또 관중입장이 허용될 경우를 대비해 경기장 출입구에는 열화상카메라, 손소독제를 설치했으며 발열 측정, 마스크 미착용자 입장금지, 관중석 피어 엇기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KIA의 홈경기는 28일~30일 KT전, 다음달 4일~6일 LG전이 예정돼 있다.

김민정 기자

전남도, 내년 '가고 싶은 섬' 사업대상지 2곳 공모

내달 26일까지 접수

전남도는 내년 '가고 싶은 섬' 사업 대상지에 대한 공모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27일부터 8월 26일까지로 신청서는 8월 17일부터 26일 기간에 한해 접수한다. 관심 있는 시·군은 전남도 섬해양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9월까지 서류와 현장, 정책 평가를 실시해 10월 2개 섬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는 섬 가구기 전문가 8명 이내로 평가단을 구성해 섬의 독특한 생태와 자연, 문화, 역사 등을 중심으로 섬 마을 활성화와 잠재력, 사업 추진가능성, 주민 참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되면 내년부터 10억 원씩 5년간 총 50억 원이 지원돼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개발방향과 주제 등을 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섬을 가꿀 수

있게 된다.

'가고 싶은 섬' 사업은 첫해인 2015년 여수 남도를 비롯해 고흥 연흥도, 강진 가운도, 완도 소안도, 진도 관매도, 신안 반월·박지도 등 6개 섬 선정을 시작으로 매년 2개 섬이 추가돼 현재 총 16개 섬이 선정됐다.

이중 9개 섬은 관광기초시설에 대한 조성을 마쳐 개발했으며, 오는 2024년까지 24개 섬을 선정해 집중 개발할 계획이다.

김정환 기자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노사민정이 손을 잡고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냅시다.



- 기업은 고용유지에 힘쓰고
- 근로자는 생산성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 정부는 일자리 안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불안·노사갈등 노동문제로 애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하시면 직접 방문하여 갈등해소를 위한 중재를 해드립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